

현안 분석

가계생활지수의 분석과 시사점

주요 결과

- 3/4분기 들어 소비자들의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가계생활지수”가 3/4분기 들어 지난 분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함
 - 향후 경기, 가계수입, 소비지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가계기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
 - 내구재와 서비스 항목의 지출과 관련된 소비심리를 반영하는 “소비심리지수”도 이번 조사에서 지난 조사 대비 큰 폭의 하락세로 반전되어 3/4분기 들어 일반 가계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음을 시사함

< 가계생활지수, 가계기대지수 및 소비심리지수 추이 >

지 수 명	97.12	98.3	98.6	98.9	98.12	99.3	99.6	99.9	99.12	00.3	00.6	00.9
가계생활지수	55.3	49.9	51.1	45.5	63.2	76.8	86.6	93.3	94.9	94.4	90.0	70.7
가계기대지수	59.7	62.8	66.9	58.5	85.5	96.1	105.0	107.4	108.9	106.5	99.5	77.5
소비심리지수	70.5	63.8	66.4	65.6	72.5	79.2	83.5	88.6	91.4	91.5	91.8	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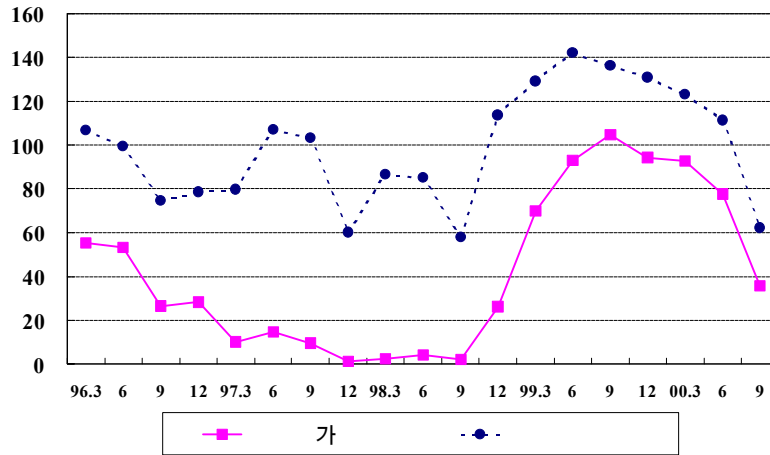
경기

- 대다수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 향후 1년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경기예측지수”는 지난 분기 대비 50p 이상 하락해 앞으로 경기가 현재 상태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 이 3/4분기 들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줌
 - 한편, 1년 전과 비교한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경기평가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해 3/4분기 들어 일반가계의 주변 경기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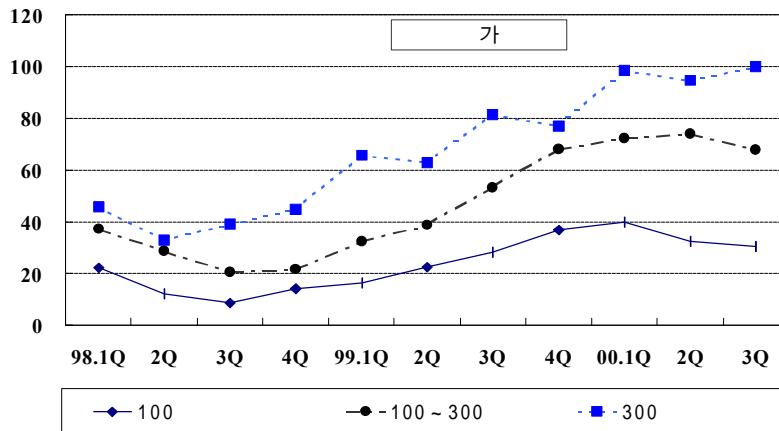
소득

- 향후 가계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는 가계가 늘어나는 추세임
- 향후 1년 동안의 월 평균 수입의 변화를 전망하는 “소득예측지수”는 81.4로 지난 조사(102.1)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해 최근 들어 향후 가계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줌
- 3/4분기 중 고소득계층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수입에 대한 평가는 개선된 반면 중위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은 평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3/4분기 들어 고소득계층과 나머지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함

< 경기평가지수와 경기에측지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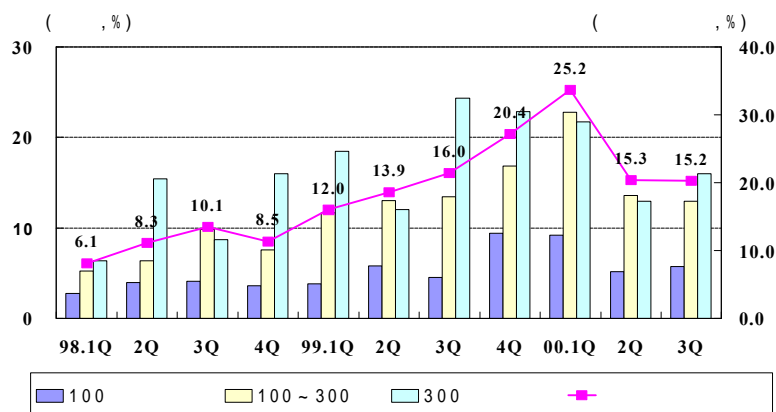
< 월 평균 소득계층별 소득평가지수 추이 >



소비

- 내구재를 비롯한 선택적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소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임
 - 향후 6개월 동안 서비스 항목(외식, 문화, 레저)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서비스지출예측지수”는 76.7로 지난 조사(94.8)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여 향후 선택적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가계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임을 시사함
 - 현재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의 내구소비재 구입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9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으나 올해 2/4분기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일반가계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로 미루어 두었던 내구소비재에 대한 이연소비가 마무리되고 있음을 시사함

< 전체 및 소득계층별 내구재 수요 추이 >



주 : 소득계층별 내구재 수요는 각 계층 내에서의 응답자 비중을 나타냄

자산 가치

- 가계 보유 자산 가치의 감소로 부(負)의 자산효과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됨
 - 지난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은행신탁 상품이나 주식의 가치가 증가했다는 응답 비중은 2.7%에 불과한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84.2%에 달함

< 주식 투자 손실 정도 >

	10% 이하	10~30% 정도	30~50% 정도	50% 이상
응답률	4.2	21.7	22.2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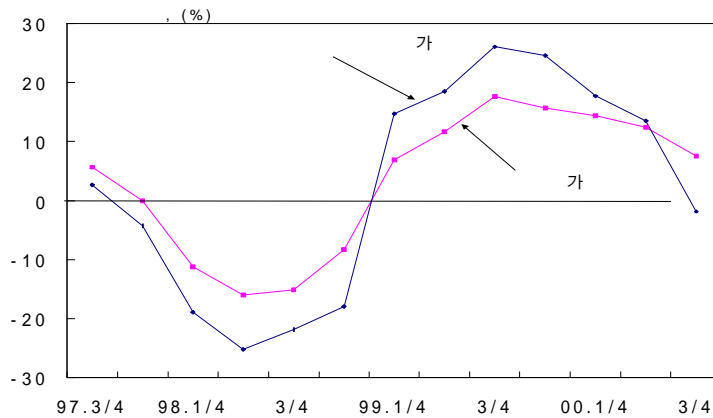
- 다수의 응답자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전세 거주자의 경우 대다수가 전세 값이 올랐다고 답함

- 전체 조사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가계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답했으며 올해 들어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응답이 90.4%에 달함. 손실을 보았다는 응답자 중 투자 원금의 반 이상을 손해 보았다는 응답 비중이 50%를 넘어섬

평가 및 시사점

- 3/4분기 중 체감경기와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은 국제 유가의 급등, 대우차의 해외매각 차질, 주식시장의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 심리로 인해 가계의 체감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었기 때문임
 - 국제 유가의 급등과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대우차 매각 차질로 구조조정의 지연과 대외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
 - 경제 전반에 걸친 불안 심리의 확산이 주식시장의 침체로 이어져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감소한 데다 3/4분기 중 전세 값의 인상과 생활물가의 상승으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됨
- 향후 서비스 항목과 내구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가계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내수 성장의 둔화가 예상됨
 - 최근 들어 주요 소비 지표인 도소매판매와 내수용 소비재 출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3/4분기 중 감소세를 나타냄
 - 따라서 가계의 소비심리 위축이 실물경기의 과도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차질 없는 실행과 더불어 신축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급락 가능성 방지에 정부 정책의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 도소매판매 증가율 및 내수용 소비재 출하 증가율 추이 >



< 가계생활지수 조사의 개요와 구성 >

- 조사목적: 일반 가계가 느끼는 경기, 소득, 소비에 대한 체감 정도 및 향후 예측을 조사하여 소비동향 파악에 이용하기 위함
- 조사기관: 현대경제연구원 (1995년 6월 이후 분기별로 조사)
- 조사대상: 전국의 만 20세 이상 기혼 남녀 980명
- 조사방법: 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
- 조사기간: 2000년 9월 25일~27일 (22차 조사)
- 조사내용:
 - 현재 및 향후 1년 후의 경기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지난 1년 및 향후 1년 동안의 월평균 수입의 변화 평가 및 전망
 - 지난 6개월 및 향후 6개월 동안의 서비스지출 비용의 변화 평가 및 전망
 - 현재 내구소비재 구매 계획 등
- 세부지수 산정:
 - 긍정적인 응답에 2, 중립에 1, 부정에 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균한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
 - 지수 값이 100을 넘으면 긍정적인 평가, 100 이하이면 부정적인 평가로 볼 수 있으나 지수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그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유용함
- 종합지수 산정:
 - 조사의 목적에 맞추어 관련 세부지수들을 가중 평균하여 종합 지수 형태의 가계생활지수, 가계기대지수, 소비심리지수를 산출함
 - 가계생활지수: 종합지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세부지수들의 가중 평균
 - 가계기대지수: 향후 예측과 관련한 지수들의 가중 평균
 - 소비심리지수: 소비 심리와 관련한 지수들의 가중 평균

(조성원 연구위원 sucho@hri.co.kr ☎ 3669-4020)